

14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든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입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렇진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입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은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쯇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31P

03. 의제 실행 39P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59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63P



하나

기후위기

시민참여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01 의제소개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시대

빙하가 녹고 이상 기후가 생기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품, 필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과 삶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점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세상은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 내 제로웨이스트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낫선 생김새와 번거로운 사용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친환경적 제품이나 생활에 대해 높은 진입 장벽을 느낍니다.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약속 - 기후위기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이에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의제를 실행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은 10월 20일에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약속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에는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채식, 친환경 기업 이용, 제도적 개선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제로웨이스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환경 관련 기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 내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매장) 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97명의 약속으로 시작된 친환경 라이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시민협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구 내 제로웨이스트샵<더커먼(The common)과 제로스테이(zerostay)>, 지역 내 공공기관, 환경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 이벤트 총 200여 명, 협약서 서명자 1,797명으로 대구시민들이 전국에서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을 가장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더 친숙하게 소개하고 환경 관련 기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웃상점, 아라리오, 제로스테이 등 환경 관련 기관의 인터뷰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활동을 알리고 친환경 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제 실행 방안

1. 온라인 서명 및 홍보 시작 (20년 11월 9일 ~ 11월 30일)

- 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홍보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협업 기관들과 홍보 진행
- ② 협업 기관 :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더커먼, 제로스테이, 하 고카페, 아라리오, 지웃상점, 제로테이블,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녹색소비 자연대,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에 서명인증 이벤트를 진행하여 당참자에게 파타고니아 플리스, 제로웨이스트샵 쿠폰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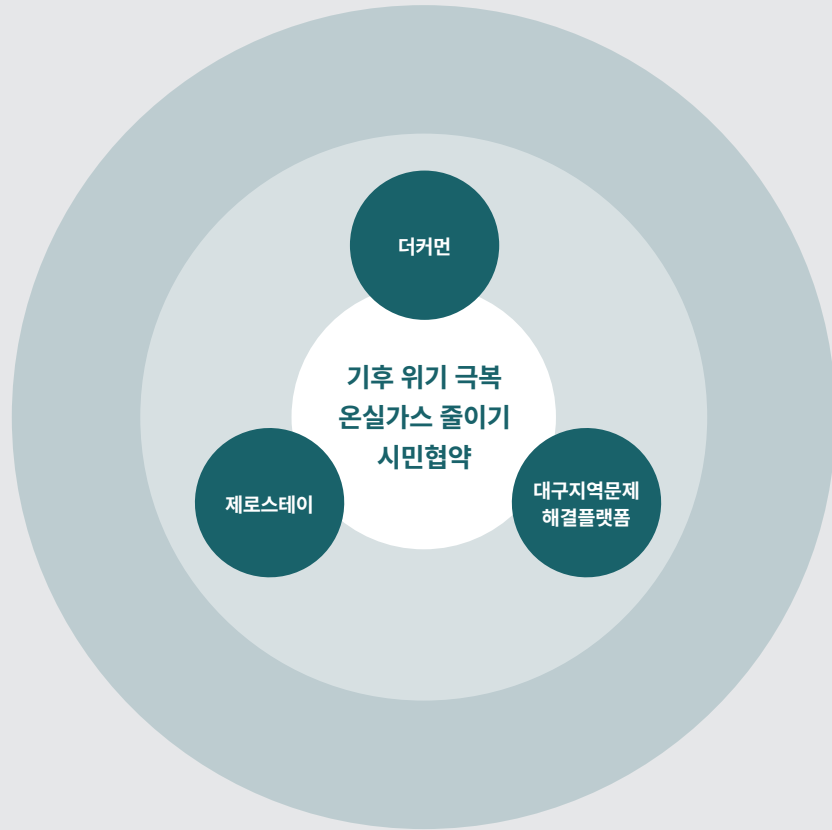
- ① 대구 내 제로웨이스트샵 2곳(더커먼, 제로스테이)와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여 매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진입 장벽을 낮춤

3.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포스터와 친환경 미니 배너를 제작하여 환경 관련 협업 기관에 부착

실행계획 (추진일정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온라인 대구 의제포럼
온라인 "환경" 의제포럼	
10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추진 협업테이블 진행
협업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퍼런스 의제협업테이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위기 대응 시민협약 포스터, 미니종이 배너
협업기관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를 제작하여 환경 관련 협업기관에 부착
홍보물 부착	
11월 7일~12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뉴스 제작 및 페이스북 업로드
서명인증 이벤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 당참자 63명에게 상품 제공 예정
11월 9일~11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기관들에 외부 홍보 요청
온라인 서명 홍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 블로그 홍보 게시글 업로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을 통해 상품 차등지급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지급 시작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비 고
1	더커먼	의제 실행 지원	
2	제로스테이	의제 실행 지원	
3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실행 기획 및 운영	

실행 주체 소개

1

더커먼(The common)

설립목적

제로웨이스트 활동과 제품을 제공하고 비건(vegan)식 문화를 알려서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

주요사업

-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
- 비건 샐러드 판매
- 제로웨이스트물품 원데이 클래스 운영
- 환경 관련 상영회와 워크숍 운영
-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행사 진행

2

제로스테이(zerostay)

설립목적

제로웨이스트 활동과 제품을 제공하여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

주요사업

-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
- 과일,아채 음료 판매
- 대구백화점 매장 운영
-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행사 진행

3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설립목적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공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함

비전

지역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 풀어갑니다.

주요사업

- 온오프라인 과제 발굴
- 의제실행지원 : 과제심화·자원연계
- 의제협업주체 역량강화도모
- 홍보채널운영 : 지역문제해결과정 홍보 및 인식확산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31P

03. 의제 실행 39P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 사업추진방식 논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공간 탐색
 민간협업단체 사업연계)

1단계

8월 7일

온라인 “환경” 의제 포럼
 발제: 신석기(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시민참여자,
 (주) 찹스틱스와이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백석산업개발(주)

10월 29일

1차 협업테이블
 한국장학재단,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10일

2차 협업테이블
 한국장학재단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2단계

11월 17일

3차 협업테이블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18일

4차 협업테이블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환경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8월 7일 (금) 14:00~15:3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 8명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시민참여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참스틱스와이드 백석산업개발(주)	장선미 김은영 사무국장 신석기 부장 박민희 채수현 사공준 반창화 백승호
기록자	김희진 매니저	

발언기록

신석기 부장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의의 신석기라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의의 오용석 차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의 주동자들께서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이동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만 얹어서 참여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점,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반창화 대표님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전문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고요.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은 반창화 대표님과 같이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기후 위기 비상사태와 그 후의 비상 선언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여러 단위들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장의 기후위기 선언 및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조금 전 2시에 시장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는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 다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과도한 육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 기후 위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근 가장 긴 장마의 집중 호우 이런 재난들이 기후변화와 또 연계되어 있어서 인류한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실가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녹색 교통의 대표 주자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자료에 보시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세계 7위입니다. 경제 규모나 그런 부분에 있어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고요. 국민 1인당 11.7톤을 1년간 배출합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전체 100에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연관해서 한국 지역에 수송 수단 부담률을 봤을 때,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가 부담률이 42.7%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자전거 수단 부담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기본적

으로 승용차는 40%대가 넘어가고요. 광주는 50%가 넘습니다. 전체 100의 이동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 자전거는 전국평균 1.1%고요. 그나마 대구가 1.9%로 가장 높습니다. 광주는 1.1%로 거의 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전거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자전거는 주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죠.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교통수단으로써도 그렇지만 레저, 운동수단으로써도 자전거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보통의 성인, 일반적인 남성들이 많이 타는 경향도 있지만, 자전거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10km 정도를 승용차로 주행했을 때, 약 2,129g 정도의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자전거는 사람이 숨 쉬는 것을 빼면 배출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친환경적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자전거의 수단 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자전거를 탈 수 없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와 비슷한 마일리지 운동이라 대구 같은 지역에서 공통의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 앱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11번과 13번 목표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데요. 먼저,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웹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6개 지역이 함께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사업을 공동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추진된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 대한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성과 공유 포럼을 진행했구요. 특히 이 자리에서는 우수 참가자

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별 우수 참가자 그리고 최고 도시(가장 많이 참여한 도시, 가장 먼 거리를 탄 도시). 이렇게 시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럽 교통 주간에 내용을 등록해서 국제적인 캠페인에 동참을 했고 한국에 이런 사례를 홍보하는 역할도 진행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캡처를 준비해왔는데요. 에코 바이크 웹과 오른쪽에 에코 바이크 앱입니다. 우선 에코 바이크 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연동되어있고요. 여기는 개인의 이동 거리, 이용 시간, 지역별 순위, 전체 참가자 간 순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온실 가스량, 그리고 에너지 절감량, 나무 심는 효과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대구에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성과라던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6개 도시에서 총 2,2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쪽 아래 보시면, 총 주행 거리가 213,692km 개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한 달간 거리를 전부 합산해보니까 213,692km 주행을 한 거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탔을 때 감축하는 양으로 계산해보니까 45t가량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측정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의 내용이 축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앱의 장점인 거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도시별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6개 도시가 참여했는데, 보시다시피 광역 자치시도 있고 기초자치체도 있습니다. 광주가 6위를 했구요. 대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열심히 한 곳은 창원시로, 가장 많은 인원과 주행거리, 주행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 타고 포인트 순위인데요. 이 타고 포인트는 자전거 1km 주행할 때마다 포인트로 환산해서 조금 측정을 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선정을 하고 그 시간대에는 10배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측정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포럼에서 개인별 시상, 그리고 도시별 시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서로 1, 2등을 하려고 엄청나게 타신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경쟁의식을 끌어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별 참가자 인원내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량, 주행거리, 지역별 성별 구성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연령대별 앱에 가입한 인원내 연령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의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표에 보셨다시피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계층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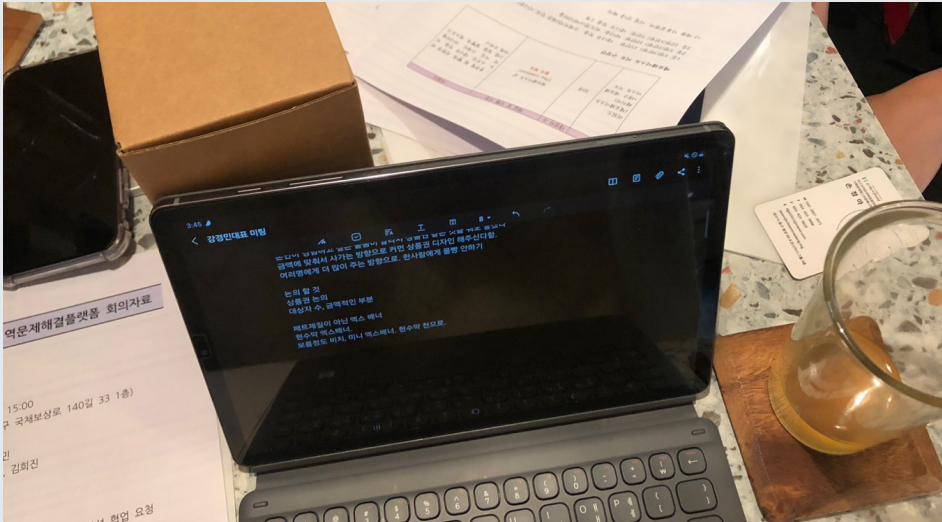
또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재미있게 자전거 타는 법,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작년의 6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자전거 및 교통 단체들이 같이 붙어서 이 사업을 공동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상황에 따라서 행정과 기업의 참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광주지역 또한 광주 기아 자동차 공장에 협업을 제안을 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고요. 공동 캠페인으로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주요 경로와 시간이 정리가 되면 광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향후 자전거 도로 개설 및 개설의 제안을 할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는 자체가 본인의 건강은 물론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이 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기후위기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협업테이블 1차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5:00

장소 : The common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3, 1층)

참여자 : 3명

더커먼	강경민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정아 선임매니저
	김희진 매니저

기록자 김희진 매니저

공유사항

- 공유1.**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시민협약 링크 홍보 프로모션 협업 요청
- 홍보물 비치, 제로웨이스트 물품 패키징 등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기후위기 시민대응 의제 추진 논의
- 인식 확산 협업 논의 (시민협약 이벤트 추진 계획안 공유)

- 안건2.** 제로웨이스트 물품 패키징 협의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기후위기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11:00
장소 : 제로스테이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 114-17, 대로변)

참여자 : 4명 제로스테이 전승현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손정아 선임매니저
안지혜 매니저
김희진 매니저

기록자 김희진 매니저

공유사항

- 공유1.**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시민협약 링크 홍보 프로모션 협업 요청
- 홍보물 비치, 제로웨이스트 물품 제공 등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기후위기 시민대응 의제 추진 논의
- 인식 확산 협업 논의 (시민협약 이벤트 추진 계획안 공유)
- 안건2.** 제로웨이스트 물품 패키징 협의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기후위기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협업테이블 3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15:00
장소 : 아라리오 (대구시 남구 큰골길131, 1층)

참여자 : 2명 아라리오 김아라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김희진 매니저

기록자 김희진 매니저

공유사항

공유1.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시민협약 링크 홍보 프로모션 협업 요청
• 홍보물 비치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기후위기 시민대응 의제 추진 논의
• 인식 확산 협업 논의 (시민협약 이벤트 추진 계획안 공유)

안건2. 인터뷰 진행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기후위기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협업테이블 4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14:30
장소 : 지웃상점 (대구 삼덕동 3가 276-3번지)

참여자 : 2명 지웃상점 남지영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김희진 매니저

기록자 김희진 매니저

공유사항

공유1.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시민협약 링크 홍보 프로모션 협업 요청
• 홍보물 비치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기후위기 시민대응 의제 추진 논의
• 인식 확산 협업 논의 (시민협약 이벤트 추진 계획안 공유)

안건2. 인터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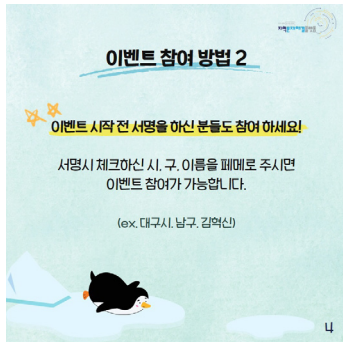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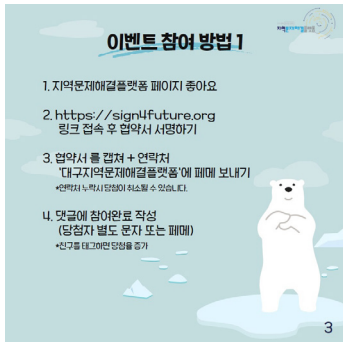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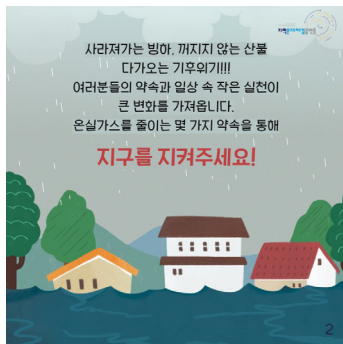
03 의제실행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서명 이벤트 시행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 활용

1

이벤트 카드뉴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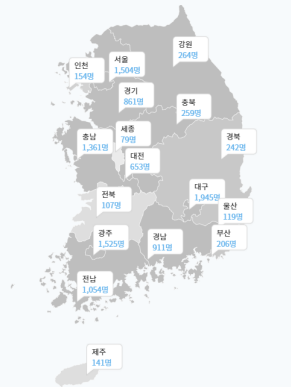
이벤트 상품



3

기후위기 시민협약 달성 1,797명 (현재 1,945명)

전국참여현황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서울	1,504명	부산	206명
인천	154명	전남	1,054명
경기	861명	전북	107명
강원	264명	광주	1,525명
충남	1,361명	제주	141명
충북	259명		
대전	653명		
세종	79명		
경남	911명		
경북	242명		
대구	1,945명		
울산	119명		

인터뷰

제로스테이(zerostay)

대구지역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가족 중에 무환자나무를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바쁘셔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무환자나무에서 열리는 소프넛이 1년에 100킬로 정도 수확되는데,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제가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열매와 잎 모두 거품이 나오는 게 신기해서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팔리겠어?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오히려 3개월 만에 완판되고 요즘도 문의 연락이 종종 와요. 소프넛은 수입산 밖에 없는데, 환경을 위해서는 비행기 운송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수입산보단 비싸지만, 국내산 소프넛을 찾아주시는 거 같아요. 소프넛 판매가 잘 되면서 신기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직 노출된 국내산 소프넛 판매처는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저의 행동이 국내산 소프넛을 알리는 시작이 되어 좋았어요.



소프넛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나요?

소프넛은 무환자나무의 열매인데요. 무환자는 심어놓으면 주변에 환자가 안 생긴다고 아주 옛날부터 조상들이 불러왔던 이름이에요. 열매뿐만 아니라 잎에서도 거품이 나와서 잘 씻겨요. 무환자나무는 원시시대부터 있었고 외국에서는 흔한 품종이에요. 1년에 1번 겨울이 되면 노랑게 익는데 그때 수확해서 작업해야 열매도 신선하게 말릴 수 있어요. 열매가 맛이 없다 보니 벌레나 새도 없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마당이 있다면 키워보시는 걸 추천해요. 무환자나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키우겠다는 분들에게 씨앗을 드리고 키우는 과정을 공유받기도 해요.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이 쓰기에 좋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시제품을 안 쓰고 소프넛으로만 씻겨요. 요즘은 비누 형태로도 친환경 제품이

잘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한 날엔 비누로 씻기기도 하고요. 소프넛 우려낸 물을 욕조에 넣으면 입욕제처럼 쓸 수도 있어요. 사용법은 끓이기도 하지만 물에 넣어 놓으면 열매 속 사포닌 성분이 계속 우러나요. 리필해서 계속 쓰고 말리고 하다 보면 열매는 그대로인데 색도 세정력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것을 모아뒀다가 끓여내서 또 사용하면 돼요. 다 쓰면 바람 많이 부는 화분에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소프넛 씨앗은 염주를 만들 때도 사용된다고 해요. 남길 것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프넛의 큰 매력인 거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물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생분해성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종이도 공장에서 가공된 것이다 보니 100퍼센트 생분해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도 마트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 매장에 있는 제품들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접근이 쉬울 거예요. 환경은 환경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내 몸에 닿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품 중 가장 일상적인 물품인 칫솔이나 수세미를 추천해요. 익숙한 제품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봐요. 그리고 소프넛에 관심이 있다면 해면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해면은 바다에 사는 산호초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프넛 거품을 내고 샤워타월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은?**

식당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은 그냥 버리게 되니까 밥 안 남기고 먹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물 절약하기 위해 양치 컵 사용하기 같은 사소한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얼마 전에 만난 제 친구가 제로 웨이스트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물 아껴 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불편할 수 있어요. 일반 세제는 한번 짜면 나오지만 소프넛은 우려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거 같아요. 또, 이미 이런 활동들을 알게 된 이상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분들은 지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위한 일니까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소프넛은 다음 달에 수확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환경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친환경 물품도 관심이 많아서 알아봤는데, 이미 개인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아직은 더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 전에 직장이 사육사였는데 결혼 후 그만두게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 잘해왔는데 길게 못 해서 아쉬웠어요. 꿈이 있던 나에 비해 결혼 후 삶이 너무 달라서 스스로가 무능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서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성취감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역시 하고 싶은 걸 하니 에너지도 생기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엄마가 되더라고요. 성취감은 이런 작은 활동으로도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도 했어요. 나를 위한 환경 활동을 더 많은 사람이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아라리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 앞산에서 3년간 수제 잼 가게 ‘아라리오’를 운영하는 김아라입니다. 아라리오는 제철 과일과 정제되지 않은 소량의 설탕을 이용하여 수제 잼, 수제 청, 발효 식초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현미 가래떡을 만들고 있어요. 방부제와 첨가물을 넣지 않고 비정제원당을 적게 넣기 때문에 과육 본연의 달달함을 즐기실 수 있어요. 평소에 저는 맛있는 걸 소개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을 좋아해요. 잼이 꼭 빵에만 발라먹는 게 아니라 군고구마에 발라먹거나 아이스크림 토핑으로도 잘 어울려요. 다른 식자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만 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이 잼을 만들고 판매하는 지금의 아라리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1월 앞산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 행사인 앞장을 9번째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역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습관처럼 장 보러 나갈 때는 에코백과 장바구니를, 카페에 갈 때는 텀블러를, 그리고 쇼핑 후 받은 종이가방은 버리지 않고 크기별로 모아 필요할 때마다 몇 번씩 쓰고 또 쓰는 습관을 아직 고수하고 있어요.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창함보다 그냥 에코백이나 텀블러는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종이가방은 버리기 아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음식을 만드는 자영업 일을 하게 되면서 제 생활 습관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음식이 닿는다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비닐이나 이중포장이 불가피했고 상하지 않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이 많아지고 유리 용기를 보호할 에어캡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게 음식이거

든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식품을 만드는 소상공인으로써 환경에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할 필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해나가고자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일회용품 줄이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 나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물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비닐 안 쓰기, 플라스틱 없애기, 에어캡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인지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비닐을 안 쓰시기도 하고 쓴 걸 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아라리오 시작 당시 쓰던 플라스틱을 지금은 다 유리로 바꿨고 세척 및 열 살균 소독 과정으로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저는 행복해졌어요. 요즘 에어캡을 대신해서 종이로 된 벌집 모양의 완충재가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유리병을 포장하는데 가끔 낯선 포장법에 놀라는 손님들이 계셔서 물에 녹는 생분해성 완충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메모를 항상 같이 보내고 있어요. 아이스팩의 경우 안에 들어간 성분이 물이 된 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앞장 행사에 오신 손님들과 안 쓰는 스티로폼 상자나 아이스팩을 모으는 캠페인을 했는데 거기서 받은 것들을 세척해 사용하고 있어요. 스티로폼 박스, 에코백, 아이스팩 세 가지를 모집했는데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동참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우유 상자 정도의 작은 수거함을 들고 갔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분이 가져와 주셨고 그렇게 에코백 54개, 스티로폼 상자 22개, 아이스팩 107개가 모였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현미 가래떡을 만드는데 떡을 포장할 진공 포장지의 대체품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펄프 종이로 포장한 적이 있었는데 공기에 노출된 떡이 굳기도 하고 종이에 늘어붙어서 컴플레인도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의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음에도 더 완벽하게 일회용품 줄이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랬지만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부족한 건 자문을 통해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찾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이 즐거워요.



제로 웨이스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살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물티슈 대신 손수건이나 소창 행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설거지할 때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수세미 대신 천연수세미를 사용하고 화학적 세제 대신 환경에 이로운 소프트 열매를 천연세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일회용 비닐 팩 대신 왁스 랩이나 씻어서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실리콘 랩을 추천합니다.



지구를 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플라스틱 사용은 자연에도 안 좋지만 우리 몸에도 안 좋아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도 해요. 스스로와 지구를 위해 우리는 작지만 큰, 소소하지만 확실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냉장고 1대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사용할 경우 5등급에 비해 연간 65.4kg CO2 감축, 약 26,362원 절약할 수 있음) 또한 멀티탭으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실내온도를 여름 26°C 겨울 20°C 적정온도로 유지하고 기온에 맞는 적절한 의상을 입어 불필요한 냉·난방 기구 전력 낭비를 하지 않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실천하는 것 역시 환경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 88kg CO2 감축, 약 16,402원 절약) 옥수수껍질이나 마늘, 양파껍질, 대파 뿌리 등은 모두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치킨 뼈 역시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편리한 배달음식이나 택배 주문을 줄이거나 친환경 배송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배달음식을 시킬 때는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칸에 간단히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일회용 사용줄이기에 일조할 수 있죠. 또 귀찮더라도 포장 용기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내 씻고, 부착상표도 제거해서 배출해야 해요. 택배로 배송된 박스를 버릴 때도 테이프를 반드시 제거해 분리배출을 하면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우유 팩은 종이컵과 일반 종이가 섞여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기에, 따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용한 우유 팩을 씻어서 펼치고 말린 후 모아 매년 애용하는 생활협동조합에 가져다준 지 3년째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유 팩은 재생휴지 원료로 되살림 됩니다.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우유 팩을 따로 수거 받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우유 팩을 가져주면 좋아요. 판매자의 경우, 재료를 시장에서 택배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오면 플라스틱 팩에 담겨있던지 비닐에 싸여오는 경우가 많아요. 직판장에서 대용량으로 가져오거나 농장과 연계해서 받는 것을 추천해요. 사실 직판장이나 농장에서 온 재료들은 흙이 묻고 생김새가 예쁘진 않지만, 세척 과정만 더 들어간다면 환경적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명이라는 현상을 아시나요. 외부의 진동 주파수와 한 물체의 고유한 진동수가 순간적으로 일치할 때 진폭이 매우 커져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작은 바람이 튼튼한 다리를 무너트리기도 합니다. 작은 시작이 만드는 큰 울림. 2017년 시작한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 장터 앞장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시는 분들께 혜택(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했더니 첫 회 때 근처 마트에서 사 오신 일회용 접시를 내밀며 “저 개인 도시락 가져왔어요. 여기 담아주세요” 하시며 해맑게 웃으시던 한 분이 잊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절마다 총 아홉 번의 장을 주최할수록 점차 참여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오시는 손님들이 늘어감에 따라 찬장에 있던 도시락통을 꺼내 들고, 텀블러를 챙기고, 장바구니를 메는 등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졌던 앞장. 이뿐 아니라 대구의 제로 웨이스트 샵 가게도 작년에 9개였는데, 일 년 사이 두 배 넘는 20곳이 이상 생겼어요.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젠 필 환경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실천해야만 하죠. 저는 매장의 살림을 꾸려감에 있어, 평소의 취미인 등산과 플로깅을 함께 있어서 꾸준히 활동하고 또 지속적으로 알려려고요. 제가 그랬듯 의무감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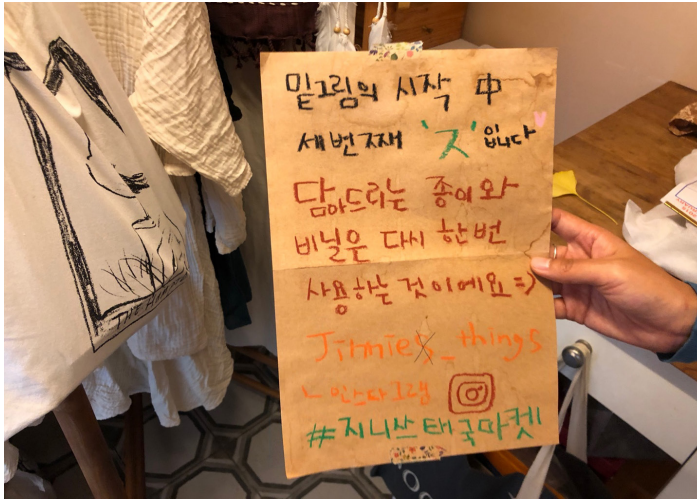
우리가 모두 같이 했을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인터뷰

지웃상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웃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여행과 자연환경을 아끼는 사람, 남지영입니다. 지웃 상점이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기보단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쪽에 더 가까워요. 샵이라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제로 웨이스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중한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정의하자면 지웃 상점은 자연환경과 개인의 좋은 소비를 지향하는 곳이에요. 지웃 상점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생각이 이어져 채식을 시작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웃 상점과 채식에 대한 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대구지역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행을 좋아해서 5년 전부터 태국을 자주 갔어요. 여행을 통해 취향이나 스타일이 변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을 밀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저를 알아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의 첫 밀그림인 블로그는 지니쓰태국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일상 포스팅이나 간단한 판매 활동을 했어요. 판매는 태국 여행에서 사 온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람들과 나눌 정도로 작게 시작했어요. 편지와 함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거든요. 잘 안 나갈 것 같던 물건들도 제 주인이 있고 제가 주인을 찾아주는 듯한 일이 흥미로웠어요.

그게 지웃상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빈티지뿐만 아니라 잘 쓰일 수 있는 새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개인마다 소비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물건을 가져오곤 해요. 밀그림의 '시작'의 초성을 때서 지니쓰마켓 's'으로 판매를 했었고 다음은 지니쓰마켓 'l'였고 그다음에 'z'으로 지금의 지웃 상점이 되었죠. 지웃 상점부터는 팝업 공간과 함께하게 되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되었어요. 상점의 베이스는 태국이긴 해요. 늘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데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웃 상점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채식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완전한 채식은 아니에요. 처음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건 넷플릭스 환경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였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진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핑권을 좋아해서 남극의 눈물을 다시 보거나 산호초나 플라스틱, 동물과 관련된 다른 다큐멘터리도 봐요. 그 당시 유독 미세먼지가 이슈화되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미세먼지는 토픽의 수준이 안되었거든요. 환경이 왜 이렇게 심해졌지?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타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뭔가 잘못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 같아요.

채식에 대한 의견은 다양해요. 건강에 관한 생각부터 채식을 하는 이유까지도 다 달라요. 비윤리적인 동물 사육, 환경에 대해 생각해서 보통 채식을 시작하는데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채식을 시작한 터라 식품관 외에도 콘센트 그

기, 쓰레기 줍기, 손수건, 텀블러 사용 등 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 활동도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완전 채식으로 시작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용으로 닭은 먹되, 붉은 고기는 먹지 말자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다 넷플릭스 행복 원정대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여행을 갔을 때 음식도 문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꼭 자신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태국 여행에서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편이에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했어요. 우유도 아몬드 우유나 귀리로 대체했고 버터나 계란, 요거트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주에 살면서 일이 바쁘다 보니 또 채식에 대한 의지가 무너지더라고요. 채식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만의 기준이 확립되어 갔어요. 채식 관련해서 물어보는 지인이 있으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제일 베이스가 되는 기준을 정해두고 유동적으로 하는 걸 추천 해요.



채식은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차적으로는 공장 사육이 문제예요. 공장 사육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고 사육하려면 가축을 위한 사료와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세우려면 산을 깎거나 나무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로 쓰이는 채소와 물은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많아요. 가축들이 배출하는 가스들은 공기에 안 좋아요. 채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공장사육의 방식이 잘못되었고 자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먹는 고기뿐만 아니라 동물을 산 채로 잡아 옷이나 장식용, 가방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제품과 간단한 활동을 추천해주세요.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사는 것도 환경에 좋지만, 아직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물건을 신중하게 쓰는 게 중요하죠. 저도 가구부터 옷, 식기 등 모든 생활 물품들은 실용적이고 심플한 거로 사서 잘 안 바꿔요. 요새는 재개발하면서 물건을 내놓는데 그런 가구들을 재활용하기도 해요. 물건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시 쓰기를 실천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돼요.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고기 먹는 데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환경도 소비습관도 식습관도 맥락은 같아요. 신중하게 했을 때 결국 환경에 도움이 되거든요. 쓰임이 없는 것들은 중고거래나 나눔을 하기도 해요.



이외에도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는 봉기기 활동이 있어요. 쓰레기 줍는 건데 저는 제주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를 주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을 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고 장바구니, 손수건, 텀블러, 도시락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요. 지웃 상점에서는 제가 입고 쓰는 것들을 판매하는데 그중 법랑 도시락을 추천해요. 채식 식당이 잘 없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도시락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 환경에도 좋고 집에서 그릇으로 써도 될 정도로 실용적이예요. 매일 들고 다니는 건 힘들지만 예쁘고 실용적이면 한 번 더 쓰게 되는 거 같아요. 법랑 도시락 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도시락도 판매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치마 공장에서 재단하고 남은 끈을 가져와 쓰기도 하고 친환경 용지를 써서 제품을 만드는 등 지웃 상점의 대부분 포장은 친환경 용지를 쓰거나 재사용을 해요.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어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재생지로 인화해서 엽서 복으로 제작할 생각도 있어요. 환경 스티커도 만들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기보단 지금처럼 소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장소였으면 해요.

꼭 사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59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63P



기후위기



시민참여

01

의제 실행 성과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①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서에 1,700명 이상 서명
- ② 대구 내 제로웨이스트 샵 2곳과의 협업 추진 활성화
 - 기후 위기 페이스북 이벤트 약 200명 참여
 - 63명의 당첨자들에게 제로웨이스트 물품구매 쿠폰 제공
- ③ 기후 위기 홍보 포스터, 종이 배너를 환경 관련 업체 20곳에 비치
- ④ 환경 인터뷰 콘텐츠 원고 3개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
 - 제로스테이, 지웃상점, 아라리오
- ⑤ 관련 기사 언론보도 총 3회



3곳 (한겨레, 영남일보, 이로운넷) 기재

2020-11-02.~2020-11-27.

1

일자리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지역 혁신으로 가는 '플랫폼'

2020-11-02 <한겨레>



2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후 위기 극복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2020-11-26 <영남일보>



3

"기후위기 극복 바라다면서명해주세요!"

2020-11-27 <이로운넷>



사회 시평

일자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지역 혁신으로 가는 '플랫폼'

2020-11-02 13:58 | 4월 2020-11-02 14:00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일터'에 선별 코로나 플랫폼 국가 역이더에 다수

지역혁신 플랫폼 두 마리 토끼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랫폼' 백리산 혁신을 위한 도시 캠페인 대학생 인식행동 역이더에 눈길

발전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시민 활동 112건 전에서 '일터'



지역혁신 플랫폼 '일터'에 선별 코로나 플랫폼 국가 역이더에 다수

발전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시민 활동 112건 전에서 '일터'

지역혁신 플랫폼 '일터'에 선별 코로나 플랫폼 국가 역이더에 다수

발전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시민 활동 112건 전에서 '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후위기 극복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박종만 | 2020-11-26 | 17:26 | 2020-11-26



본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으로 지역혁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랫폼'에 선별 코로나 플랫폼 국가 역이더에 다수

지역혁신 플랫폼 '일터'에 선별 코로나 플랫폼 국가 역이더에 다수

발전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시민 활동 112건 전에서 '일터'

지역혁신 플랫폼 '일터'에 선별 코로나 플랫폼 국가 역이더에 다수

발전 대응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플랫폼'... 시민 활동 112건 전에서 '일터'

사회혁신을 위한 이로운넷

HOME > 사회혁신 > 사회

"기후위기 극복 바라다면서명해주세요!"

A 이로운넷-이로운넷-이로운넷 | © 송민 2020-11-27 12:57

시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촉구 캠페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오는 30일까지 서명 공유 이벤트 진행

이산화탄소 과다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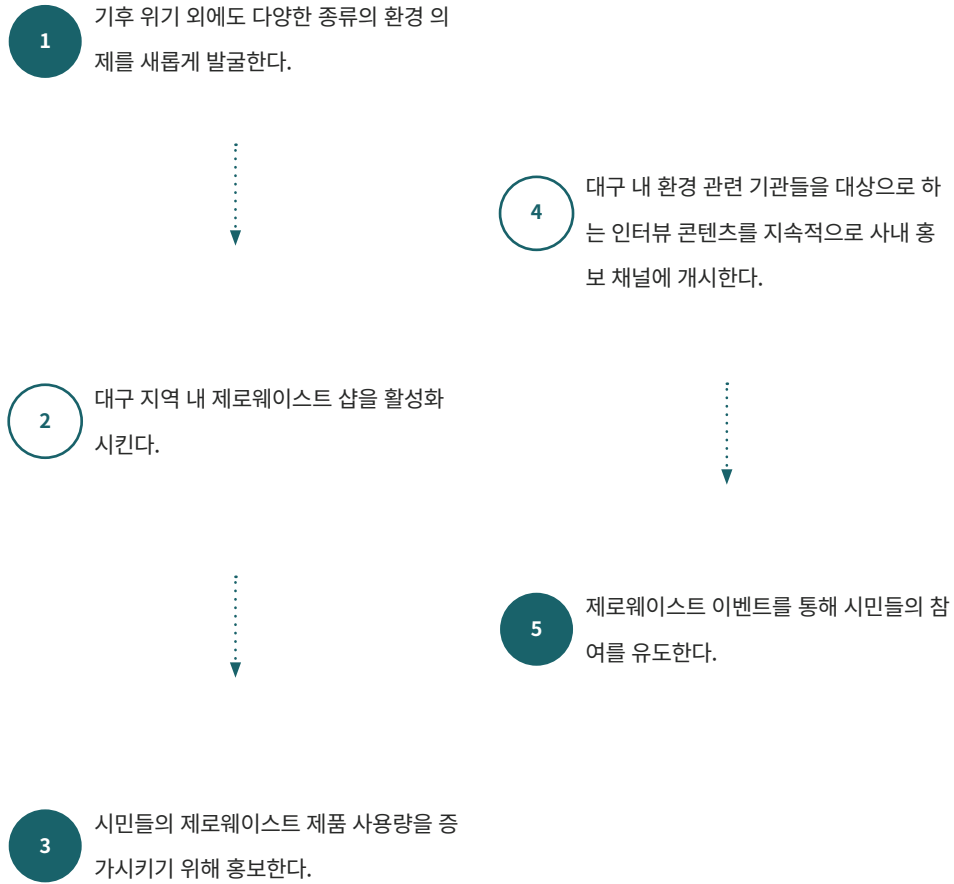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오는 12월 말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정보진흥원,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시민협약'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시작된 캠페인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예년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10개 항목서 문항 중 선택해 서명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7000여 명이 시민협약에 서명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더 많은 캠페인 참여자를 모으고자 지역 제로웨이스트샵인 더 커먼과 제로스테이와 협업에 오는 30일까지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의제 가이드북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발행일 2021년 04월 22일

발행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획·글·디자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